

# 수급조절 공기능화로 소비자가격 안정도모

UR 농산물 수입개방 압력에 따라 앞으로 예상될 축산농가의 피해와 농촌인구의 이탈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고는 지난 11월 한국육계산업발전협의회가 주관한 육계산업 계열체계 총점검 심포지엄에서 김전환 축협중앙회 유통개발부장이 정리한 내용중 주요사항을 발췌·요약한 것이다. -편집자주-

## 서 론

80년대 후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일기 시작한 농업 분야에 대한 수입개방 압력 및 UR 협상은 국내 전반의 산업 뿐만 아니라 기반이 취약한 국내 축산업계로서는 절대절명의 기로에 놓이게 되었다는 표현이 적절할 것이다.

특히 우리 정부가 주장해온 쌀을 비롯한 주요 축산물의 비교역적 대상품목(NITC)지정에 대하여 우리와 입장을 같이 해왔던 독일 등 EC국가 일부와 일본 등이 전면 개방에 대한 신축적인 자세로 변화된 입장을 보여 농산물 시장개방 문제는 지난해 12월 브뤼셀 각료회의에서 결정되었던 UR 협상이 곧 타결될 징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작금의 농산물 생산기반은 우리의 먹거리 시장마저도 외국의 1차 생산물과 가공식품류 등 외국상품이 좌지우지할 지경에 이르렀으며 이로 인한 축산농가의 피해와 농촌 인구의 이탈현상

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축산이 현재에 이르기까지는 정부를 탓하기 앞서 축산인 스스로의 자성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다행히 양계산업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는 계열화사업은 우리의 노력여하에 따라서 충분한 국제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향후 농가의 경영측면이나 우리의 양계산업을 국제경쟁력 있는 수출전략 축종으로까지 키우기 위해서는 계열화사업의 시급한 정착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본고는 축협이 생산자 단체로서의 계열화사업 방향 및 협동 계열체계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 I. 축협 계열화사업의 필요성

- 생산의 계열화로 원가절감을 통한 경쟁력 제고 시급
- 생산 원자재의 자체생산 및 대량구매 잇점

-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비용절감
  - ※ 사료 및 병아리 생산의 계열화와 사육환경 개선을 통한 원가절감(968~650원)
    - 수급조절의 공기능화를 통한 산지 및 소비자 가격 안정
      - 계열업체간 연계 필요→상호 생산수급기능 조절을 갖는 체계구축
      - 병아리 공급가격의 안정과 우량 병아리 생산 기반 구축
      - 위생 도제육의 유통 정착으로 소비기반 확대
      - 양계 사육농가의 정기적인 연수를 통한 사양 및 경영능력 배양
      - 육계 사육농가를 계열주체의 경제적 횡포로부터 보호
      - 사육 수수료의 어음지급 및 대금결제 기간 연장을 통한 농가피해 방지를 위한 선도적 기능 수행

현 행	개 선
kg/110~150원	계열주체와 생산자간 협의회에서 결정(원가 및 비용 근거 제시)

## II. 축협외 계열체계

### 1. 축협의 계열통합에 따른 경영체계

- 육계의 생산·수집·도계·가공·마케팅 분야가 총체적으로 연계되는 1, 2, 3차 산업을 일괄 소유 관리하는 경제단위를 완전통합하여 경영체계 구축(Integrated Production and Marketing System)
  - 통합경영의 사업성과 극대화를 위한 협동조합 계열사업 독립경영체계 구축
    - 부서간 이견조정에 따른 마찰의 극소화
    - 사업 해결정의 신속성
    - 대두된 현안문제 해결방안→전문가 입장에서 권리와 책임부여

## III. 축협의 계열화사업 수행에 대한 당위성

### 1. 당위성

- 육계 사육농가 조합원에 대한 봉사 및 가격안정 기여 의무
  - 농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가격 선도기능을 생산자 단체 스스로 수행해야 함.
    - 수수료 및 가격담합 방지
    - 수급조절에 대한 공기능화 정착기능 수행
    - 유사 계열업체 및 유통상인으로부터의 피해를 생산자 단체인 축협이 스스로 보호할 의무가 있다.

### 2. 축협의 계열화사업 수행시 유리한 조건

- 생산을 전담해줄 육계사육 조합원이 있다.
- 사료공장 보유 및 기타 생산기자재 설비에 대한 기반조성이 용이하다.
- 축산분야 전문 인력이 풍부하며 연구목장 경영을 통한 경험축적
  - 시험목장 및 사료 연구소의 육계 생산성에 대한 연구활동 확대
  - 계열농가에 대한 금융지원 및 각종 수혜혜택의 폭을 넓힐 수 있다.
  - 조합별 단지화 조성을 통한 집약관리가 용이함.
  - 생산→판매까지의 폭넓은 관련부서의 협조로 계열화사업 수행이 용이하다.
    - 생산, 가공, 비축, 판매업무 관장부서 연관
    - 군납 및 자체 판매망이 갖추어져 있어 유통상 문제점이 없다.
- <자체 판매망 현황>
  - '91년말 기준 150개→96년까지 300개 증설

### 3. 종계·부화장 건립 사유

#### 가. '91조합원 닭고기 생산량(추정)

- 양계분야 조합원 현황:6,579농가(10월 현재)
- 지육생산기준:24,480M/T(생체 1.8kg/18,260천수) ※ 지육율 65%
- 연간 병아리 소요량:19,278천수(폐사 5%감안)
- '91 국내 닭고기 생산량 178천 M/T(추정) 대비-13.8% 점유

#### 나. 금후 축협 닭고기 생산 전망

○축협에서 추진중인 양축농가 경영규모 확대에 따른 전업화 계획을 추진중에 있어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지육생산기준 증가추정(2000년대)

현재	향후전망
24,480M/T	42,370M/T
(100.0%)	(173%)

전업화에 의한 수증가는 약 1.5배로 추정하였으며 여기에 출하체중 증가량 300g의 65%계상한 것임.

※ 사육수의 증가와 출하체중의 상향으로 약 1.73배의 증가요인 추정

#### 다. 국내 종계 및 부화업의 문제점

##### (1) 종계 생산성

- '90 국내 종계 생산성 저하시 병아리 생산량 →암종계 1수당 병아리 90~100수 생산
- ※ 외국 종계 생산성 →암종계 1수당 140~150수의 병아리 생산
- 생산성 대비(외국/국내) →약 65.5%수준
- 종계 생산성 회복 기대
- 국내 대다수의 종계장이 시설 낙후와 관리자의 인건비 상승에 따른 고급인력 미확보로 획기적인 생산성 기대

※ 최근 정부주도로 종계장 시설개선 지원 등 일부 종계장의 생산성 향상 노력이 있으나 아직은 미흡한 실정임.

##### (2) 국내 부화장의 문제점

- 병아리 구입 가격이 불안정하며 육계의 안정 사육 기반 저해
- 병아리 가격 대비 육계 가격 및 생산비
- 부화장의 신용도
- 병아리 품귀시 인도시기 불이행으로 계획생산 차질
- 가격상승 및 품귀시 병아리 인수조건부 선도금 요구
- 병아리 인도 약속을 부화장측이 일방 파기해

구분	병아리 판매가격 (수당/원)			동시기① 육계가격 (kg/원)	육계② 생산비 (kg/원)	A/B(육계가격중 가축비 점유비)		A/O(생산비중 가축비 점유비)		가격조사기간
	최고③	최저	차이			최고	최저	최고	최저	
1989	450	340	110	1,120	919	%	%	%	%	'89.12월
1990	490	380	110	730	968	67	52	51	39	'90.6.22
1991	268	218	50	925	-	29	24	-	-	'91.1~9.25

※ 양계협회 양계속보, 축협조사계보

※ '91년도는 9월 25일까지 연평균치임

※ '91등락폭  
 ┌─ 최고 430원(9.25)  
 └─ 최저 40원(7.23)

도 차기인수를 위해 일방피해 감소

- 품귀시 허약추 공급사태 있음.

이상의 문제점은 국내 일부 종계부화장에서 병아리 수요증가시 마다 발생하는 부조리로서 농가의 피해호소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 라. 축협 종계·부화장 건립 필요성

○육계 사육농가 및 조합원에게 우량 병아리를 저렴한 가격으로 보급

○육계 생산비중 가축비(병아리가격) 점유를 낮추어 경쟁력 향상

※ 89년 G업체의 병아리 생산원가(자료:한국농촌경제연구원)

예) 125원(종란가격)+20원(위탁부화수수료)+7원(기타 경비)÷0.8%(부화율)=190원

• 89년 시중시세 318~365원에 비해 약 150원 이상 저렴한 가격임.

• G업체의 생산비는 종란을 구입하여 부화장에 위탁 부화한 생산원가이므로 자체 종계장에게 종란 생산후 부화시 생산원가는 더욱 낮아질 것임.

○조합원 및 일반육계 사육농가로부터 축협 계열화사업 실시요구 및 병아리 분양을 통한 가격선도기능 요망.

### 4. 도계장 보유 계획

#### 가. 국내 도계장 분포 및 처리능력

○소유구분

- 축협:3개소(대전, 춘천, 양평축협)

• 민영:71개소

(1) 도계처리실태

현재 전국 도계장의 1일 처리능력은 1,116.5천수로서 연간 320일 작업일수로 가정하면 연간 357,280천수의 처리능력을 갖고 있으며 '91년 닭고기 생산추정량 178천M/T을 훨씬 상회하는 도계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소비의 계절편중으로 인한 도계장 활용도 낮음.

※ 88년 전국 도계장 평균 가동율 30%정도에 이르고 있음.

○도계장 가동율이 저조한 것은 도계실적의 고의 누락이나 밀도계 잔존추정

(2) 국내 도계장 운영상 문제점

○유통구조의 낙후와 도계설비 낙후에 따른 야간도계가 대부분임.

○도계설비의 수입 의존도가 높고 고가품으로서 시설개선 지연

○생계물량의 고정확보가 어려워 도계장 효율성 저하

#### 나. 축협 도계장 보유 필요성

○조합원 양축농가의 육계를 적기수집 적기도계

○군납 물량의 안정적 처리기반 구축

• 현재 축협에서 수행중인 군납용육계의 도계처리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아 군부식물량 안정확보가 어려운 실정임

○수집 도계 가공을 일원화하므로서의 유통비용 절감

○위생 도계육 조기정착 기여

지역	전체	서울경기	경북대구	경남부산	전북	전남광주	충북	충남	강원	제주
도계장수	74	24개소	10	8	6	6	3	9	8	2
도계처리능력	100.0	32.4 %	13.51	10.81	8.11	8.11	4.05	9.46	10.8	2.7
인구 (%)	100.0	41.74	12.08	17.24	4.9	8.7	2.3	6.9	3.9	2.0

※등급구분  특급 51개소  
 1급 23개소      계:74개소

○가격하락시 수매비축 업무의 원활성 확보

#### IV. 축협이 계열화 발전 방향

○양돈 계열화사업의 구조적인 개선을 통한 활성화 방안강구

○육계 및 산란계 계열화를 위한 통합 경영체제 구축

○한우의 고급육 생산으로 수입육에 대한 차별화를 위한 한우 계열화 계획 수립

축협은 현재 수행중인 양돈 계열화사업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대폭 개선하여 생산 유통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열통합을 추진하고 있으며 김제에 건설중인 육가공공장을 비롯한 양돈 조합 등을 돈육수출 전진기지화하여 국제경쟁력 있는 수출전략 축종으로 양돈계열화를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현재 계획중인 육계계열화 사업도 업종조합 및 양계집단지역 조합을 중심으로 권역화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위한 종계·부화장 및 도계장을 건설할 계획으로 있으며 명실공히 사육을 제외한 나머지 산업기능을 종합경영 통합체제로 갖추어 나갈 계획이다.

그동안 한우 사육두수의 감소와 수입육의 방출로 자급도가 현저히 떨어진 한우를 수입육과 차별화하여 고급육 생산중심의 계열화사업을 통한 한우의 우수성을 널리 인식시키고 아울러 현재 수행중인 개량우 단지에서 생산된 한우를 중심으로 고급육 생산 계열화를 계획하고 있어 축협은 앞으로 전축종에 걸친 계열화 사업을 직접 수행해 나갈 계획이며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계열업체 및 유관단체와 긴밀한 협조로서 경쟁이던 상호보완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양계**

### 무허가 부화장 및 미등록 종계장 고발센터 안내

- 대 상 : ○무허가 부화장 경영자  
○미등록 종계장 경영자  
○미검정 종계 유효기간 초과 종계 보유자  
○불량종란 또는 불량초생추 생산·유통하는자
- 방 법 : 서면 또는 전화(신분 보장)
- 조 치 : ○접수후 사실확인 위법사실 확인되면 당국에 고발 등 적절한 조치  
○결과 월간양계 및 양계관련 매체에 공표
- 접 수 : 사단법인 대한양계협회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16-5  
전화 : (02)588-7651, Fax : 588-7655